

도리고에 폭포와 오타키 폭포

이 두 개의 폭포는 특히 초여름에는 신록으로 둘러싸이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명소입니다.

도리고에 폭포는 시즈쿠이시초 교외에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갓콘다 계곡을 따라 있는 낙차 30m의 폭포입니다. 폭포 근처에는 다키노우에 온천이 있고, 기슭에서는 선명한 초록빛 물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키노우에 온천은 당일 이용객도 입욕할 수 있으므로 폭포 구경과 함께 온천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겨울철에는 다키노우에 온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폐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타키 폭포는 도리고에 폭포보다 작지만, 오슈쿠 온천 마을 안에 있어 이 아름다운 폭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슈쿠 온천 거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